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5 Number 09 **09** 2017



대중화되어 버린 지질학에서의 잘못된 사고의 전환
(Famous “Wrong Turns” in Geology) – (2)

찰스 라이엘과 찰스 다윈

1841년만 해도 여행객의 목적지가 아니었던 나이아가라 폭포는 당시 약 10년 전에 출간된 찰스 라이엘 (Charles Lyell) 지질학의 원리 (Principles of Geology) 때문에 오랜 지구에 대해 점진적 진화 개념을 확인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¹ 나이아가라 폭포는 오늘날 11km 길이의 협곡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나이아가라 강의 유속은 그랜드 캐년의 콜로라도 강의 약 10배정도 빠르다. 폭포는 협곡을 만들어내면서 상류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라이엘은 하류 쪽의 마모율을 알고 싶어했다. 라이엘은 로버트 베이크웰 주니어(Robert Bakewell Jr.)를 알게 되었는데, 그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약 40년 동안 측정한 결과 1년당 1m의 후퇴율 (마모율)을 보여주었다고 보고한 사람이다. 이 수치는 이후에 정확한 수치로 증명되었다.

이 마모 속도로 협곡을 오늘날 모습으로 침식시키려면 약 만천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빙하시대 후기 동안 로렌타이드(Laurentide) 빙상이 이미 거의 녹아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가만하면 마모율이 오랜 시간동안 일정했다고 가정하기는 매우 불합리하다(역자주: 급격한 해빙 때문에 물이 많이 유입되어 과거에는 마모율이 훨씬 빨랐을 것이다). 그러나 라이엘은 멈추지 않았다. 과거의 마모율이 현재 보다 빨랐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이크웰이 측정한 값보다 3배 정도 느렸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러한 가정은 나이아가라 폭포의 연대를 3만 5천년으로 만들었고, 그는 그의 다음 개정판에도 계속해서 이 수치를 사용했다.

이러한 임의적인 추측이 결코 검증될 수 없다는 점과 젊은 지구를 이야기하는 모세의 글을² 점진론적이고 더 “수학적”인 지구 역사로 대체시키기 원했던 그의 열정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비 성경적인 연대는 단지 라이엘이 선호한 것이지 분명히 과학적인 논리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어쨌든 라이엘의 오류는 드 마이

예의 것보다 더 터무니 없는 것이었다. 그의 전환은 지질학에 있어서 좋지 못한 사고의 전환이 되었다.³ 그러나 이러한 전환이 그의 비현실적인 주장을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라이엘의 오류가 그의 어린 제자인 찰스 다윈(Charles Darwin)에게는 매우 심오한 것이었다.

찰스 다윈의 비글호 여행(the Beagle, 1831~1835) 동안 그는 라이엘의 ‘지질학의 원리(Principle of Geology)’의 초판을 갖고 있었다. 오늘날의 남부 아르헨티나에서 다윈과 비글호 선원들은 협곡의 크기에 비해 다

소 좁은 산타 크루즈 강을 따라 올라갔다. 그의 논문에서 그는 작은 강이 그러한 큰 협곡을 점진적으로 만들어내려면 “오랜 시간(lapse of ages)”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구 역사에 대한 라이엘의 접근 방식을 더욱 신뢰하게 됐다. 강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다윈과 선원들은 강둑 위로 높이 약 20km 정도에 걸쳐 나열된 언덕(역자주: 그들은 이 언덕을 사구로 오해함)들을 지나갔다. 그러나, 그 “언덕”들은 모래 사구가 아니라 미식 축구 경기장 크기의 큰 암석이었다! 일부는 약 10km의 협곡 넓이 대부분에 펼쳐진 거대한 “하천 사주(river bars)”와 함께 배열되어 있었다.⁴ 그 협곡은 아주 “단기간”에 연속적으로 침식한 큰 규모의 홍수들(mega-floods)의 배수로였다. 그러나 이 젊은 자연주의자(찰스 다윈)는 그 큰 협곡의 형성 원인이

그 작은 강의 침식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간과해 버렸다. 비글호가 케이프 혼(Cape Horn) 주변을 더 항해하고 태평양으로 가는 동안 이 젊은 다윈은 확고하게 지질학적 점진론자가 되어 있었다.



찰스 다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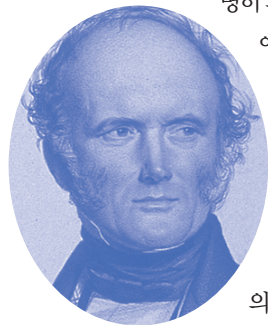
다윈은 갈라파고스 섬에서 지역적으로 서식하고 있던 핀치새의 부리 크기의 차이를 관찰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거듭 반복된 습하고 건조한 계절 때문에, 즉 자연 선택에 의해, 큰 부리의 새가 많았다가 작은 부리의 새가 많아졌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합리적인 것이었지만, 다윈은 거기서 더 나아갔다. 그의 이전 믿음대로 즉, 마치 작은 강들이 큰 협곡을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낸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작은 변이(variation)가 핀치가 아니었던 어떤 조상으로부터 핀치새로 진화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의 진화이론은 단

순히 라이엘의 점진론을 생물학에 적용한 것이었고, 그러한 작은 변이가 어떤 방식으로 진화적 방향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학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다. 어쨌든 과학은 그러한 추정에 대해 신뢰를 주지 않는다. 드 마이예의 진화 모델과의 차이점은 주로 세부적인 것들이겠지만, 둘 다 모두 공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찰스 다윈의 진화이론은 과학에 있어서 전형적 잘못된 사고의 전환으로 남아 있다.

드 마이예와 라이엘 그리고 다윈의 잘못된 사고의 전환은 측정 실험 기기의 부정확함이나 실험에 대한 숙련도의 부족과 같은 것 때문이 아니었다. 원인은 가정의 오류였다. 점진론적인 진화이론이 매우 오래 전 과거로 적용될 때 실제 사실이나 과학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동일과정설적 실습은 오늘날의 공립 학교, 국립 박물관, 그리고 국립 공원 등에서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사실성도 보여주지 못하는 진화론적 이론들을 수용하며 창세기의 주요한 부분들을 기꺼이 수정하려 한다.⁵ 이러한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생각하며 그들 역시 잘못되게 사고를 전환한다. 기억할 것은, 명백히 지구 역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신다(God has not been silent)는 것이다.



Bill Hoesch
M.S. Geology



찰스 라이엘

1] “나이아가라 폭포와 성경(Niagara Falls and the Bible),” 래리 피어스(by Larry Pierce) (Creation 22:4, September 2000, p. 8-13)에서 이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http://creation.com/niagara-falls-and-the-bible>

2] 한 편지에서 라이엘의 “모세로부터 과학을 해방(free the science from Moses)” (Letter of Charles Lyell to G. P. Scrope, June 14, 1830, Life, Letters and Journals of Sir Charles Lyell, John Murray, 1881, v. I, p. 268-71) 시키려는 열정이 잘 드러난다. 그의 “버크랜드의 홍수 이론(Buckland’s diluvial theory)”에 대항하는 지속적인 운동”과 당시 “성경과 조화된 지질학”이라는 말에 대한 경멸은 그의 옥스포드 대학생의 시절까지도 이어진다 (M.J.S. Rudwick, The Meaning of Fossils, 2nd edition, 1985, U. of Chicago Press, p. 168). 성경의 홍수를 실제 지구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그는 혐오했다.

3] 스테판 굴드(Stephen J. Gould)는 “단기간에 갑작스런 진화의 지지자들을 향하여 (Toward the vindication of

punctuational change)” (in W.A. Berggren & J.A. Van Couvering, Catastrophes and Earth History, 1984, Princeton University Press, 9-34) 에서 찰스 라이엘에 대한 역사를 바로 잡았다.

4] S. A. Austin & J. A. Strelin, “Megafloods on the Santa Cruz River, Southern Argentina,” Geological Society of America, Abstracts w. Programs, p. 249. https://gsa.confex.com/gsa/2011AM/finalprogram/abstract_191286.htm, 참고 “Where Darwin went wrong, with Dr. Steve Austin,” <https://www.youtube.com/watch?v=3darzVqzV2o>.

5] 기독교 변증학에서 빅뱅이론의 사용은 현재의 자연의 과정을 과거에 동일하게 적용한 현대 가설의 한 가지 예이다. 이것은 지구와 우주 역사에 있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한다. 참고, Jonathan Henry, “Christian apologists should abandon the big bang,” (Journal of Creation v. 23, no. 3, 2009). https://creation.com/images/pdfs/tj/tj23_3/tj23_3_103-109.pdf



망간괴 미스터리와 노아홍수

대양 심해의 해저면에는 망간괴 (Manganese nodule) 라는 자갈에서 볼링볼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금속덩어리가 널려 있는데, 이 속에는 망간, 니켈, 코발트 등의 고가 금속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미래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심해의 광권을 획득하여 그 귀한 금속들의 채광 (심해저 채광 deep-sea mining)을 하려고 투자와 기술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과 한국도 이에 예외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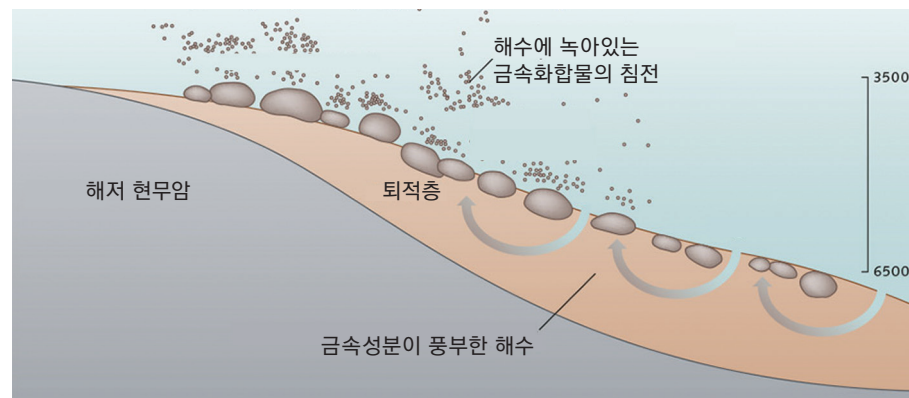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러한 망간괴가 해저 지층의 표면 (해저 표면 50cm 이내) 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수십억 년 지구역사를 믿는 지질학자와 진화론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먼저 지금까지 알려진 망간괴의 생성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망간괴는 바다속에 함유된 화학성분들이 침하하며 해저에 널려 있는 상어이빨과 같은 작은 고착물질에 지속적으로 유착되어 생성되고 커가게 (nucleation and growth) 된다고 세속학자들도 믿는다. 해양 이끼(algae)나 박테리아등이 그 생성과 성장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망간괴는 오직 해저표면에서만 생성되고 성장하게 된다. 세속학자들의 논문에 의하면 방사성 동위원소로 측정해 보니 해저면의 망간괴는 적어도 수백만년 전에 생성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가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인공호수나 저수지 등에서도 여건이 갖추어지면 작은 망간괴가 발견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세속학자들의 이론에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망간괴가 오직 지금의 해저표면 50cm이내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이다. 만약 동일과정설로 비슷한 과정이 수억 년 동안 아주 천천히 계속 진행되었다면

세속학자들의 또다른 믿음은 현재의 관찰로부터 유출하여 (the present is the key to the past; uniformitarianism 동일과정설) 심해저의 지층이 (육지로부터의 토사유입이 없으므로) 수십만 년에 수 cm의 비율로 아주 천천히 쌓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백에서 수천 미터에 달하는 해저지층이 적어도 수천만, 수억 년은 되었다는 것이다.

자, 이러한 세속학자들의 이론에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망간괴가 오직 지금의 해저표면 50cm이내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이다. 만약 동일과정설로 비슷한 과정이 수억 년 동안 아주 천천히 계속 진행되었다면 심해의 모든 지층에서 망간괴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심해저 지층을 드릴로 천공해서 살펴 보면 오직 해저표면에서만 망간괴가 발견된다. 이러한 특이 현상을 세속학자들은 아직까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노아시대 대홍수에 근거해 지질학을 펼치고 있는 창조과학자들에게는 너무나 설명하기 쉬운 문제이다. 노아홍수 중이나 끝부분에 엄청난 물이 창궐하고 물러가며 대륙 토양을 쓸어내어 지속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에 심해저 지층을 쌓았기 때문에 망간괴가 해저 표면에서 형성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다. 엄청난 규모의 대홍수가 완전히 끝난 후에는 해저 지층의 형성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게 되고 현재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노아홍수 바로 후(post-flood), 지속적인 화산 활동으로 더운 대양 (warm and chemical-rich ocean)과 서늘한 공기가 공존하는 빙하기 동안에, 대양은 화학성분이 풍부했었고 이끼나 박테리아도 더 많았을 것이다. 그 때, 해저 표면에서 망간괴의 생성과 성장이

창세기의 대홍수를 믿으면 이런 특이 현상이 명약관화하게 설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세속의 학자들이 이런 설명을 받아들일 리 없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해저표면에만 존재하는 망간괴를 설명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가속화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직 심해저 표면에서만 망간괴가 발견된다. 이는 창조과학자 허버트(Jake Hebert)박사의 논문 내용으로 매우 설득력 있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논문은 성경내용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세속 유명 학술지에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창세기의 대홍수를 믿으면 이런 특이 현상이 명약관화하게 설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세속의 학자들이 이런 설명을 받아들일 리 없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해저표면에만 존재하는 망간괴를 설명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창세기의 대홍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일관된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해 보인다.

앞에서 세속학자들이 믿고 있는 수천만, 수억 년에 걸친 해저지층 형성에도 결정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해저 표면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들이 지속적으로 토양 입자들을 섞고 있기 때문에 (biourbation) 그런 식으로 수십만 년에 수 cm 씩 토양이 쌓인다면 지질학적 지층 (geological layer)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아홍수와 같은 대홍수의 격변환경에서 토양입자들이 흐름의 속도에 따라 분리되며 (sediment gravity sorting) 퇴적되어 뚜렷한 지층을 형성시킨다는 사실은 이미 흐름 수조 실험에서 증명된 바 있다. 필자는 해양공학 전공으로 입자법에 근거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그 실험을 재현하려고 연구 중에 있다.

과거를 추리하는 역사과학은 실험/관찰/재현이 가능한 실증과학(operational science)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연구하더라도 연구자의 전제와 세계관에 의해 다르게 유추/해석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의 세속 학술계는 실험/관찰/재현이 불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연주의적/진화론적 해석만 인정한다.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확실히 인지하고, 진화론과 동일과정설의 치명적인 문제점 들을 계속 설파하며, 이러한 학술환경과 패러다임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려는 작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 (Jesus & His Words)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3)



김무현 박사
해양토목공학



창조과학탐사

지난 7월은 창조과학탐사로 가득 찼던 한 달이었습니다. 방학을 맞이하여 한어권과 영어권 모두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진화론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성경의 증거를 사실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공간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집 EM

모집 EM 창조과학탐사

지난 7월 10-13일, 영어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창조과학탐사가 Bill Hoesch의 인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선욱 박사도 동행하여 인도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43명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고등학생이었고, 버스와 호텔에서 창조과학 세미나를 들었으며, 그랜드 캐년, 브라이스 캐년, 코다크롬 분지, 자이언 캐년을 중심으로 성경적 지질역사를 설명되었습니다. 참가한 학생들은 평소 성경과 과학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질문들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답변을 들었으며, 서로 깊은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탐사여행은 한 분의 후원으로 저렴한 참가비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한인 2세 젊은이들이 성경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천약수교회

지난 7월 3-10일 과천약수교회(담임목사 설동주)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중심으로 노아 때의 홍수 심판과 그 이후에 일어난 빙하시대의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그 성경적 증거가 확실함을 공감했습니다. 아울러 하루하루 창탐이 진행되면서 왜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그 근본적 이유도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 다음 세대를 위한 창탐 스케줄도 계획했습니다.

한동대학교 교수

지난 7월 13-19일 한동대학교 교수 창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여러 성경적 증거를 확인함과 동시에 더욱 성경 속으로 마음이 정해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투어 말미에 현 대학생들의 현실을 나누고, 앞으로의 창탐 진행에 대한 각자의 바램을 나눌 때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기독교 대학생들에 스며있는 타협 이론에 대한 현실과 위험성에 대하여 염려뿐 아니라 해결 방안



과천약수교회



동산고



선한목자 젊은이교회

도 함께 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창탐에는 미시간 주립대 정상협 교수와 창조과학선교회 김낙경 박사님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안산동산고등학교

지난 7월 20-23일 안산동산고등학교 창조과학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참석자 모두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한창 진화론을 접하는 시기란 점에서 중요했습니다. 성경적 증거뿐 아니라 교과서 안에 수록된 진화의 증거들도 다루었습니다. 교과서에 들어있는 것들이 진화의 증거가 아니며, 이는 이미 학계에서 오류나 진화와 무관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과 함께 분별력을 가꿀 수 있었



한동대

습니다. 세상 학문을 접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진화론의 문제점과 성경적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

지난 7월 24-28일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모두 선한목자교회(담임목사 유기성)의 청년들입니다. 창탐에 참석하기 이전에 참석자들 중에는 이미 창조과학과 이에 반대하는 책들도 접한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진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화론의 비과학성, 포스트모더니즘, 홍수심판의 증거, 지구 나이, 우주의 기원 등을 다루고, 특별히 최근 한국에서 등장한 타협 이론에 대한 부분을 접할 때 그 비논리성을 확인하면서 정리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과 이 시대가 얼마나 진화론에 젖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창탐이 오늘날 진화론에 젖어 있는 세상 속에서 귀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데 공감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희망했습니다.

창조과학세미나

노회성 강사는 LA사랑의교회 (담임목사 김기섭) 6학년을 대상으로 지난 7월 9~30 일 동안 4회에 걸쳐 창조과학세미나를 캠프 형식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중학생으로 진 급하는 청소년들이 성경적 창조와 진화론적 지식을 구별하며,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대로 세상을 보았을 때 오히려 과학적으로도 더 잘 설명되고, 하나님의 뜻 과 마음을 알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 생물, 지구와 우주, 공룡 등에 관 한 기원 역사를 다루었으며, 특별히 참가한 학생들은 각 주제에 따른 크래프트 시간을 즐겁게 참여하여 배움의 효과가 더욱 컸습니다.

Bill Hoesch는 지난 7월 15일 코스타 메사의 창조과학그룹의 초청을 받아 그랜드 캐년을 중심으로 한 홍수 지질학을 강의하였 습니다. 약 60명의 청중들이 성 경적 지질학과 역사를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선욱 박사(Dr. John Kim)는



사랑의교회 중등부



Virginia Agape International Baptist Church Seminar



Creation Truth Camp

지난 7월 16일 드림 선교회, 7월 30일 버지니아 아가페 인터내셔널 침례교회에서 세미 나를 인도하였습니다. 두 세미나에서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여러 목사님, 신학교 교수 님이 참석하여 '6일 창조'를 그대로 신뢰하는 창조과학선교회가 이 시대에 왜 꼭 필요한 지 그 확실한 이유를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이 성경적인 창조 신앙을 2세 사역자들에게 어떻게 전수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드림 선교회 주관으로 8월 14-17일에 켄터키주에 소재한 창조과학박물관과 노아방주(Ark Encounter)에 방문하는 일정이 계획되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창조과학세미나 워크북 제작

창조과학선교회에서 중학생(Junior high)용 워크북을 제작하였습니다. 기원을 주제로 한 5가지 영역 - 인류의 기원, 종의 기원, 화석 생물과 종류, 우주의 기원, 공룡의 비밀 - 로 구성됩니다.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이루신 창조의 놀라움을 공유하며, 진화론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지적인 능력이 급 격히 성장하는 청소년 시기에 창조 신앙을 성경적으로 회복하고, 복음에 대한 확신과 성경적 사고 능력을 성장시키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흥미와 사고력을 촉진시키는 크래프트와 함께 구성됩니다. 창조과학선교회의 전문 강사들의 강의와 함 께 활용 가능하며, 영어와 한국어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의) 사무실 : HisArk@gmail.com, 담당자 : 노회성 remaininhislove@gmail.com

제 9 기 ITCM 모집

창조사역 집중 훈련(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 ITCM) 참가자를 모집합 니다. 제 9기 ITCM은 2017년 12월 22일부터 2017년 2월16일까지 8주간, 미국 엘에 이(Los Angeles)에 소재한 창조과학선교회에서 진행됩니다.

ITCM 지원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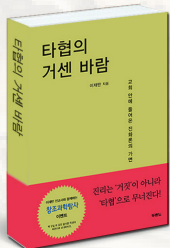
1. 신앙고백: www.HisArk.com About Act의 What We Believe에 명시된 6 항목에 동의하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서 1부
2. 본인 소개서 1부 (지원동기와 이력서 포함하는 자기 소개서)
3. 대학 혹은 최종 학교 성적 증명서
4. 추천서 1부 (참고인 3명 중 1인의 추천서)

위 4가지 지원서류는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신앙고백과 본인소개서 양식은 문의를 주 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서류 심사와 면담(원거리의 경우 전화통화) 후 8~10월 사이에 10명 이하로 선발합니다.

문의 및 접수 : 노회성 remaininhislove@gmail.com

ITCM지원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isArk.com) [EVENT]와 [훈련 프로그램]을 참조해 주십시오.

“타협의 거센 바람”을 읽고



최근 학교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종교개혁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 스위스, 체코, 오스트리아 등 유럽 4개국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너져가는 유럽 교회들을 직접 보았다. 그곳에서 본 교회들은 이곳에 신앙을 가졌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박물관과 같았다. 이젠만 선교사님의 말씀이

실감이 났다. 물론 영국 교회와 같이 다른 용도로 변한 곳은 아직 없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없었고 대부분이 노인이거나 관광객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 모습은 이제 곧 이들 교회도 용도가 바뀌고 팔려버린 많은 영국 교회와 같은 처치가 될 것이라 말해주고 있었다.

500년 전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외치며 인간이 세운 종교적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고 그 외에도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종교개혁의 중심지였지만, 지금 대부분의 유럽 교회들은 경건의 모양도 능력도 사라졌고 종교개혁자들의 신앙도 전수되지 못한 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어버렸다.

ITCM 훈련 기간 중 들었던 미국교회의 상황도 지금의 유럽교회와 다를 바 없었다. 많은 미국교회가 유럽교회와 같이 점차 노인들만 남겨지고 다음 세대가 떠나고 있었고 교회를 향한 신뢰도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Grace Community Church)와 갈보리 채플(Calvary Chapel)은 달랐다. 두 교회를 방문했을 때 보았던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두꺼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모습과 설교 시간에 전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집중하는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 다음 세대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고, 성경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두 교회 모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자 사실로 가르치는 신학교를 통해 목회자들을 양성하면서 다음 세대 양육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두 교회는 유신진화론에 대해 경계하며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가르쳤고 성경만이 진리임을 강조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유럽교회와 미국교회가 그랬듯이 유신진화론과 타협이론들이 신학교에서 강의되고 교회에서 세미나로 진행되고 있다. 신학교에서 창세기는 이미 유신진화론으로 해석되고 있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성경 전체가 훼손되고 있으며, 성서비평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문학작품 따위로 전락해버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그대로 교회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잠30:6). 이 두려운 흐름의 중심에 유신진화론이 있다. 유신진화론은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못하며, 성경보다 진화론을 신뢰한다. 또한 유신진화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변질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다시 오실 이유를 변질시켜 버린다. 즉, 유신진화론은 단지 ‘창조’만 건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성경 전체’를 왜곡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한국교회와 신학교는 창세기와 성경이 유신진화론으로 해석될 때 침묵하고 있으며 신학생들과 성도들은 유신진화론을 여과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교회가 이미 유럽교회와 미국교회가 맞본 유신진화론의 나쁜 열매를 맛볼 필요가 없는 데도 말이다. 500년 전 종교개혁은 나 혼자만 잘 믿고 끝났다면 일어나지 않았다. 성경에서 멀어진 나를 발견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발견하고, 교회를 발견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침묵하지 않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고,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봤고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를 돌아봤으며 무너져가는 교회를 발견했다.

진화론이 믿음의 근본인 성경과 반대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교회가 침묵한다면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를 붙들지 못한 지금의 유럽교회와 미국교회와 같이 신앙의 전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타협의 거센 바람』은 교회 안에 들어온 성경에 대한 타협을 분별하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근본인 성경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귀한 지침을 준다. 한국교회가 유신진화론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성경이 사실임을 믿고 타협하지 않으며 ‘성경으로 돌아가자’ 외치는 한 사람이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 2:15)

정은수 / ITCM 6기



이번 4박5일 동안 배운 내용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창조에 대한 확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갖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대세인 진화론이 교회에 침투하고 내 개인에 침투했다는 것이 매우 무섭고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서충석

교회적으로는 창조과학에 대한 교육과 경험이 더욱 필요한 시대라는 것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과 청년들은 진화론적 세계관과 결과에 대한 교육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성경교육과 창조론을 비롯한 세계관 교육의 필요성과 적용점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양승식

이번 창조과학탐사를 통해, 그동안 내가 성경을 얼마나 추상적으로 믿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능하고 좋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자기 계시인 창조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 진화론의 시대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김군현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기준없이 과학이라는 명목 아래 유신론적 진화론이나 여러 타협 이론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에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성경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서는 계기가 되어 감사합니다. -정의도

저는 중국인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국내에 유학 온 중국인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대화하며 느낀 것은 마음에 가득 찬 무신론과 유물론 사상이었습니다. 창조과학탐사가 그들에게 성경을 변증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임성진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이 시대의 사상과 철학으로부터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보고 들은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바로 적용해야겠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황인우 전도사

이 귀한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귀한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사 한 사람, 한 사람은 미래의 한국 교회입니다. 이번에 보고 들은 신학생들을 통해 변화될 한국 교회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황대연 목사



● 편집되지 않은 많은 간증은 Homepage(www.hisark.com)의 "ACT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7/2018 ACT Schedule

9/12-15	창조과학탐사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 이재만
9/18-21	창조과학탐사 (뉴저지초대교회+오픈), 이재만
9/23	창조과학세미나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9/25-28	창조과학탐사 (앵커리지온누리교회), 이재만
10/12-19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10/23-27	창조과학탐사 (대한예수교합동 수원노회), 이재만
10/28 - 11/27	한국, 대만, 홍콩 세미나, 이재만
11/20-22	창조과학탐사 (오렌지한인교회 EM), Bill Hoesch
12/10	창조과학세미나 (베델한인교회 중고등부), 노회성
12/22-2/16	제9기 ITCM
1/2-5	창조과학탐사 (19차 유학생), 이재만
1/15-21	창조과학탐사 (예인교회), 이재만
2/19-23	창조과학탐사 (서초충신교회), 이재만
2/24-28	창조과학탐사 (행복한교회), 이재만
3/1-3/31	한국 및 대만 세미나,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